

<Where Art Meets Living: 현대미술과 라이프스타일>

강희경(크리스티나 강, 아트컨설턴트, 패러다임아트 컴퍼니 대표)

I. 의: 패션과 관련된 현대 작가들의 협업 사례

패션은 더 이상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사람들은 옷을 예술가가 만든 '작품'으로 대하며, 예술가는 패션을 만들고, 패션 디자이너도 예술작품으로 옷을 디자인한다. 이제 패션은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는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예술작품이 된 것이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이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통해 그들의 작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제프 쿤스와 같은 거장 현대 예술가는 H&M과 같은 패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대량 생산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는 컬렉터들이 비싼 작품을 구매함으로써 예술과 함께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티스트와 패션 콜레보레이션 아이템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술 작품을 입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II. 식: 식품, 식기와 관련한 협업 및 음식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 사례

배고플 때 섭취하는 식품 혹은 인체의 주요한 에너지의 원동력으로써 음식을 여겨왔으나 현대 미술에서 그것은 예술적 소재 나아가 설치 미술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음식은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으로써 그 개념을 넘어 예술로써 시각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이자 예술의 아이콘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제니퍼 루벨, 윌 코튼 외 다수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III. 주: 실내·외 공간과 관련한 협업 및 작품 소개

집은 안식처이자 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써의 개념이었으나, 현대미술가들은 집을 아트 작품으로 여기고 그 안의 벽지를 디자인한다. 또한, 공공 미술가들은 예술과 함께 하는 삶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업적 디자인을 통해 재미있고 유니크한 공간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업이나 재단 역시 단순히 건물 혹은 안식처로서의 집을 넘어 생활 공간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여긴다. 마릴린 민터, 우르스 피셔 외 다수 현대미술작가들이 표현한 이러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IV. Born Again: 업사이클링 현대 작품

버려진 종이나 잡지,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 본래의 기능을 잃은 재료들을 이용하여 전혀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탐 프라이스와 레미 & 빈하우젠 등 다양한 작가들을 통해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그들의 작업 세계를 소개한다.